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단비'

지난해까지 판매액 1088억원

고창군 지역화폐 '고창사랑상품권'이 발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1,136억원이고 판매액은 1,088억원으로 발행액 대비 96% 판매실적을 올렸다. 3년간 총 환전액은 980억원으로 판매액 대비 90%에 이른다. 이 중 개인 판매액은 743억원으로 총판매액 대비 68%에 이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총 발행액 1,136억원 중 민선 7기에 처음 시행된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규모는 316억원이고, 일반발행액은 820억원으로 예산 지급이 상품권 발행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고창군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트·식당·주유소·커피숍·속박업·도소매상가 등 가맹점 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그 결과 노점상 등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한 고창군 전체 상점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이 통용되고 있다.



▲높을고창카드 사용 편리성 증대
고창군은 2020년 2월 지류형 고창사랑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상품권인 '높을고창카드'를 출시했다. 소비생활에 있어서 지류보다 카드 사용이 편리해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사용자가 휴대전화에 '고창사랑페이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바로 충전,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 보유도 증명, 소독공예 신청이 가능해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 '높을고창카드'는 개인 구매자에게는 총전액의 10% 추가 혜택과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소상공인은 환전의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고창사랑상품권 단점 보완
판매·환전액 모두 크게 늘어
돌고 도는 선순환 경제 정착

▲고창 자본 역외유출 방지
요즘 고창 상인들 사이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이 환영받는 까닭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고창의 자본을 지역 상권으로 붙잡아 왔기 때문이다.

그간 고창은 지역 내 소득이 인근 광주나 영광, 정읍, 부안 등으로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고, 고창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구조를 정착시키면서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창유성, 고인물박물관 등 고창군 대표 관광지에 방문한 유료관광객 324만명에게 약 4억800만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관광객들의 고창 내 소비를 촉진시켰다. 실제 주말이면 고창유성, 고인물박물관 주변 카페와 식당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외지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긴급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각종 정책예산이 고창사랑상품권(지류 및 카드)으로 지급됐고 개인 구입시 10% 추가 충전 혜택까지 더해져서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품권 가맹점주들은 "상품권 판매증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소비를 촉진해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할인을 통한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이 되는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고창사랑상품권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종구)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 가맹점 판매액이 3.81% 증가하고 가맹점 이용객은 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568억원, 부가가치유발 916억원, 고용유발 약 220명에 이르는 결과를 얻었다. 비경제적 효과는



상품권을 통한 경제활동 및 거래증가로 지역 내 유키역 관계망 형성, 생산성 증가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이익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근본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대상기간 2019년 7월~2021년 9월 가맹점 100개소, 군민 100명 설문 통한 표본조사)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어민공익수당, 경로 이미지원,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예산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고창의 자본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 고창을 기치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군정의 최우선순위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